
둘째 마당

예수의 시대상

역사의 예수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 한 시대의 상황은 그 시대의 과거와의 관련에서만 파악된다. 그러므로 예수 시대와 관련이 있는 범위내에서 과거 역사로 소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에 보완할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아무리 역사서라고 해도 그것을 쓸 당시의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려는 문서들이 성립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 역사문헌의 객관성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예수의 시대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헌은 물론 신약성서로, 그것은 주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완성되었다. 나아가 동시대의 역사적 문헌으로는 요세푸스의 『유다전쟁』(*Bellum Judaicum*)인데, 이 역사서는 예수의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때부터 유다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초토화된 때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주후 74~75년에 씌어졌으며, 그의 또 다른 역사서인 『유다 고대사』(*Antiquitates*)는 93~94년에 씌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문헌들을 토대로 하여 그 당시의 사회·역사적 상황과 중요한 사건을 일별하고, 그러한 상황 및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운동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수시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원인(遠因)은 알렉산더의 원정(주전 324~313년)이다. 회람문화에 심취한 마케도니아 청년 알렉산더는 회람문화로 온 세계를 통일하는 것을 인류를 위한 사명으로 알고 군대를 이끌고 소아시아, 시리아, 에집트, 바빌론 그리고 인더스 강까지 원정했는데 그때 팔레스틴도 그 판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30대 초반에 요절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원정은 동서문화, 구체적으로 회람문화와 중동아시아의 문화(종교)가 마주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것이 혼합현상을 이루어 제삼의 문화현상인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 문화는 유다교는 물론 그리스도교에 큰 도전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원정은 동시에 정치적 판도를 크게 바꾸는 결과를 수반했다. 알렉산더가 죽은 뒤 현지주둔군 사령관들을 중심으로 주도권싸움이 벌어져 마침내 마케도니아, 에집트 그리고 바빌론과 남부시리아 지역으로 삼분되기에 이르렀다. 에집트 현지사령관은 프톨레매오(Ptolemäer), 시리아 지역의 사령관은 셀류커스(Seleukids, 이후 시리아라고 부른다)였는데 그들은 각기 자기 이름을 딴 왕국을 세웠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프톨레매오의 위협 아래 있다가 시리아의 손에 넘어갔다.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3세(주전 222~187년 재위)는 프톨레매오와의 싸움에서 자기 편에 섰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다. 그중 특기할 것은 이스라엘민을 많이 이주·정착시킨 것인데 이로써(리디아와 부리기아를 위시해서) 바빌론, 요빠, 갈릴래아 등지에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역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이다.¹⁾ 그러나 사태가 급전환되어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은

1) W. Förster, *Neutestamentliche Zeitgeschichte. Das Judentum Palestinas*

예수시대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신흥세력인 로마의 저력을 모르고 진격하다가 역습당해 패함으로써 12년 동안 배상의무를 지고 그 아들을 위시한 많은 인물이 로마로 끌려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12년의 인질 생활을 끝낸 그의 아들이 귀국하여 왕권을 인수받으면서 자칭 에피파네스(Epiphanes)²⁾라고 하고 유다인을 가혹하게 통치했는데, 그가 안티오쿠스 4세(주전 175~164년 재위)이다.

그는 헬레니즘광으로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유다교 말살정책을 펴 나갔는데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강제되었다. 한편으로는 율법책을 금서로 정하고 그것을 보유하는 자를 처형했으며, 예루살렘 안에 군본부(Akra)를 두고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단을 안치하여³⁾ 유다인의 성역을 도전적으로 모독했다. 또한 매달 25일을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축제일로 삼아 자신의 신격화를 꾀했다(마카상 1, 20 이하 참조).

다른 한편으로는 헬레니즘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했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짐 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디오니소스 축제를 강요하여 술과 춤으로 유다 전통사회를 문란하게 했으며, 올림픽경기를 끌어들이어 유다인에게 금기로 되어 있는 나체로 하는 운동을 강요하는 등이 그런 예들이다.⁴⁾ 이를 시발로 로마시대까지 이런 시책이 계속되었다.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화운동인데(마카하 4, 10~17)

zur Zeit Jesu und der Apostel, Hamburg, 1959, S. 26f./문화석 역, 『신구약 중간사』, 키클디아사, 1975, 57면 이하.

2)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패왕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일컬어 ‘신의 출현’이라는 의미에서 자주 사용했다.

3) 묵시문학은 이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으로 표현한다(다니 11, 31·12, 11; 마르 13, 14 참조).

4) Jos., Ant., 12, 5에 그의 박해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오늘의 의미로는 ‘근대화’작업이다.

유다 민중은 공포와 분노에 떨었으나 이른바 지배층은 무기력함을 넘어서 이 외세를 타고 개인의 영달을 꾀하는 풍조에 휩쓸렸다. 당시 대사제 오니아스(Onias)가 일시 이에 저항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집권자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이 틈을 이용해 그의 동생 야손(Jason)⁵⁾이 은 440달란트를 주고 대사제직을 인수받았다(마카하 4, 7~9). 이것이 외세가 돈으로 사제직을 산 첫 독직사건임과 동시에 외세에 의해서 대사제직이 주어진 첫 경우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간교한 메넬라오스(Menelaus)는 더 많은 뇌물로 이 대사제직을 샀다(마카하 4, 23~29). 이 같은 난맥상은 마카베오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마카베오의 봉기와 하스몬왕권

민족의 지배층은 불의한 외세 앞에 무력했거나 아니면 부패하여 권력과 야합하고 이권을 획득하기에 급급했다. 그 지배층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모데인(Modein)에서 안티오쿠스를 위한 축제를 준비하였다. 그 동리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은둔생활을 하는 사제 출신인 노인 마따디아(Mattathias)가 아들 다섯 명과 함께 살면서 시리아의 횡포에 울분을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축제를 집행하는 관원이 한사코 그에게 개막예식을 주관하도록 강요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그가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⁶⁾ 그의 반항정신을 꺾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 그는 이

5) 그의 본명은 Joshua인데 Jason은 회람식으로 개명한 것이다(J. Bright, *A History of Israel*, London, SCM, 1971, p. 403).

6) Jos., *Ant.*, 12, 6, 1.